



# 공컨테이너 리스료 공급과잉으로 하락

## 생산업자들의 재고증가로 3-4% 가량

지난해 공급부족에 대한 컨테이너 생산업자의 과잉반응으로 지난 몇주동안 중국내에서 상당량의 컨테이너박스가 과잉 생산됨에 따라 리스료가 하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Capital Lease의 Ian Karan 회장은 약 70만TEU 정도의 공급과잉을 추정하고 있으며, 다른 컨테이너 리스업체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컨테이너박스의 대부분은 선사와 리스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투기적으로 생산됐다. 지난해 철강재 공급부족과 컨테이너 운송시장의 호황으로 선사들은 기기확보 및 공컨테이너의 아시아 재배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해는 철강재 공급에 여유가 있고 Super post panamax급 선박의 투입으로 공컨테이너의 재배치가 한결 용이해 졌다. 이러한 영향으로 컨테이너박

스 시장이 안정에 들어갔고 이로 인해 컨테이너박스 생산업자들의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

Ian Karan 회장에 따르면, 이러한 공급과잉이 리스료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 3-4% 하락했다.

한편, 신조 컨테이너박스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일부지역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Karan회장에 따르면 상하이의 생산업자들은 여전히 TEU당 2,300달러 요구하고 있으나, Sea Containers의 CEO인 James Sherwwod는 생산업자들이 가격전망을 낮추기 시작했다고 확신하고 있다.

공컨테이너의 공급과잉으로 지역간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공컨테이너리스료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투자분석기관 피치 "유럽 조선산업 붕괴 가속화"

#### 현재 조선업황 고점, 곧 유동성 위기 전망

투자분석기관인 피치(Fitch)사가 유럽조선산업의 붕괴는 계속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피치는 5월 16일자 시황보고서에서 현 시점이 조선산업 시황 싸이클 상의 고점일 수 있으며, 세계 조선시장의 경쟁격화와 강제 가격 인상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유럽조선소로부터 시작되는 유동성악화가 예상된다. 피치는 유럽조선소들이 한국과 중국의 성장에 대응해 고부가가치선으로 영업활동의 중심 이동을 시도해왔으며, 기업간 합병도 일부 있었지만 고용 면의 중요성과 군수용 조선업 유지 욕구 등 개별국가들의 국익 때문에 산업 자체가 붕괴되는 사태는 면해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장기간 이어져온 유럽조선업계의 시장내 비중 축소경향이 앞으로도 계속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조선소의 부채비율 문제가 더욱 확대되는 동시에 경쟁력 약화에 따른 정리합병 압박도 강화될 것이라고 피치는 전망했다.

피치의 이번 유럽조선산업 분석 보고서는 기업금융시장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으로, 조선산업 동향과 함께 아시아 조선산업의 급성장에 대한 유럽 조선업계의 우려와 관련한 분석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피치는 유럽 조선산업이 운영수익률 면에서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난 2004년 한해동안 부채는 감소했다고 보고했다.